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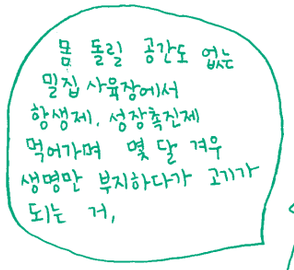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면 대부분은 그냥 '아, 그러시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가끔은 좀 더 심도 깊은 대화를 강력히 원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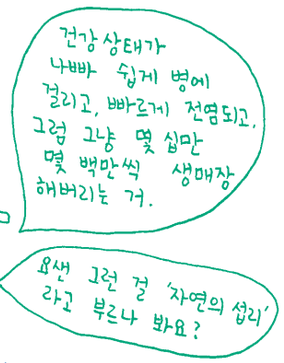




심도 깊은 대화는 나도 환영하는 바이지만, 문제는 이건 질문(혹은 지적)이 필연적으로 길고 딱딱한 대답을 부르는 성질을 가졌다는 점.

그러다 보니 정작 그걸 꺼내놓으면 분위기는 찬물 한 양동이를 끼얹은 것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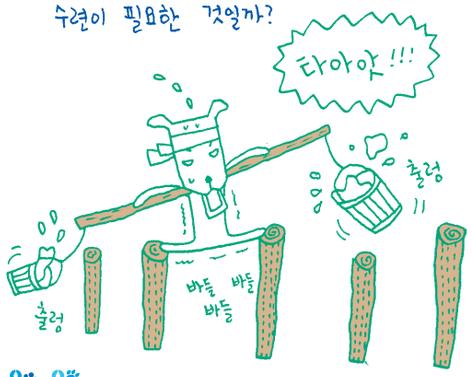








진실성 있는 답변과 부드러운 분위기, 양쪽을 모두 겸비하는 데는 역시나 고도의 수련이 필요한 것일까?



우선 요즘은 다시 폴 매카트니 형님의 노래를 맹연습 중이다.





* 꼭 채식을 하지 않더라도 고기를 덜 먹음으로써 공장식 축산업을 바꿔보아요.

OLDDOG.KR

동물자유연대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봄호
2014. 03
NO.22
동물보호지

함께 나누는 삶

Special
조류인플루엔자 원인 및 현실 진단

생명존중 캠페인
베트남 곰 농장, 왜 사라지지 않을까?

현장에서
'아시아 포 애니멀스' 2014년 컨퍼런스에 다녀오다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토종기업의 뚝심과 저력을 보여주는 대한사료주식회사

이진경의 생명 에세이
동물에 대한 예의

동물자유연대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봄호 2014. 03 NO.22

CONTENTS

03 여는 글
가금류에게 몰아닥친 광풍의 해를 맞으며

04 Special
조류인플루엔자 원인 및 현실 진단

16 현장에서
'아시아 포 애니멀스(Asia For Animals)' 2014년 컨퍼런스에 다녀오다

18 세상 읽기
제돌이 방류의 의의

20 묘생역전
'진짜 한 식구'가 된 네뜨와 사랑이

22 생명존중 캠페인
베트남 곰 농장, 왜 사라지지 않을까?

24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토종기업의 뚝심과 저력을 보여주는
대한사료주식회사

25 입양해주세요
몬순이 자매의 애교 발랄 빛나는 존재감

26 생명 에세이
동물에 대한 예의

28 활동소식
13년 11월부터 14년 3월까지 동물자유연대 활동소식

30 2013년 연례보고 · 회계보고

34 남양주 포토뉴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35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36 올드독 동물기



* 함께 나누는 삶 2013년 겨울호를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신 회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삶 계간지/ 2014. 봄호

발행처 (사)동물자유연대
주소 서울 성동구 행당동 307-18 **전화** 02.2292.6337 **팩스** 02.2292.6339
발행인 조희경 **발행일** 2014년 03월 26일 **편집 · 진행** 이기순 **교정** 강은하
등록번호 성동바 00007 **디자인 · 제작** Mayday Graphic Studio **인쇄** The조은인쇄

* 동물자유연대 매거진 <함께 나누는 삶>은 환경과 동물을 위해 재생종이 및 친환경종이를 사용합니다.

www.animals.or.kr

가금류에게 몰아닥친 광풍의 해를 맞으며

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지난겨울 우리 동물자유연대의 동물 가족들은 후원천사님들 덕분에 여느 해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가 차가운 바람을 꽁꽁 막아주었고 따끈한 온돌방은 충분히 행복한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동물들을 남양주로 보낸 후, 서울 본부도 업무시설의 면모를 되찾을 수 있게 리모델링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동물들의 흔적이 너무 깊이 배어 있던 내장재들을 다 뜯어내고 새롭게 단장시켰으며, 활동가들도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2014년을 출발했습니다. 1층에는 회원님들이 반려동물 가족을 데리고 작은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보호자들은 서로 친목을 다지며 담소와 격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나누는 자리가 되겠지요.
우리 동물가족들이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겨울을 보내는 중에, 축산 농장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살처분 대상 닭과 오리의 수가 1천만 마리를 넘겨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의 원인을 철새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를 과연 철새가 옮겼는지, 공장식 축산에서 사육되는 오리에게서 발병 후 철새로 옮겨졌는지, 이에 대한 역학관계는 밝혀진 바가 없어 애먼 철새 탓만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 되었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003년에 처음 발생한 이후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토착화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런데 농가에 부가되는 방역책임과 살처분 이외에 정부가 제대로 된 예방과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해결책이라고는 살처분과 생매장뿐인데, 제대로 대응이 계속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방역과 질병의 원인 분석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사태 해결의 시행자가 단일한 데(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정책 실패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2일에 동물복지 농장의 닭들을 예방적 살처분하는 음성군의 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살처분이 시행되기 전에, 동물복지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건강한 닭마저 살처분 결정을 한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교수와 통화를 했는데, 그의 우려와 주장 중 하나는 동물복지 농장의 닭들은 방사(야외) 사육하기 때문에 철새로부터 감염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감염 시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도 방사된 닭들은 철새에게 감염될 위험이 더 크다는 주장이 인용되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음성군에 있는 동물복지 농장은 야외 방사 사육 방식이 아닌, 축사 내 땅바닥에서 사육하는 실내 평사 방식의 농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탁상 결정의 모습을 보여준 전형적 사례입니다. 물론 정부와 학계에서 그 농장의 닭들이 실내에서 사육되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닭들이 예방적 살처분을 피해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 대한 고려나 탄력적 적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무차별적으로 살처분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례로써 증명된 셈입니다.
동물복지 농장의 닭들은 매몰 방식이 아닌 랜더링 방식으로 닭들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닭을 뜨거운 열처리로 익혀 분쇄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닭을 완전하게 죽인 후에 시행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우려한 바대로 현장에서는 죽음에 이르지 않은 닭들을 열처리 기계에 넣으려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병이 더 확산되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그러나 현장에서 지켜본 바, 닭을 인도적으로 죽이는 시간과 빨리 처리하는 시간과의 연관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닭을 랜더링 처리하는 시간 중에 뒤이어 죽을 닭들을 인도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산 닭을 열처리하려는 것을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려 하기에 닭을 들어 올리는 중장비에 올라타며 작업을 저지하니 그제야 산 닭들을 빼낼 수 있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쫓겨난 이후, 그 수많은 닭들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렇듯 동물자유연대가 더 열심히 활동해야 하는 이유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함께 가야 할 현장들입니다.

살처분돼야 하는 게 이들일까요?

새해 벽두부터 시작돼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겠다며
'예방적 살처분'이란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닭과 오리의 수가 천만을 넘겼습니다.
이들 천만 마리 중 대부분이 감염되지도 않은 생명입니다.
정작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건 이들이 아니라 공장식 축산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생산성만 좇는 축산 정책이 빚은 괴물

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2014년 1월 16일 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처음 발생했다. 이어 부안, 정읍 등의 전라도 지역에서 충남 부여·충북 진천·음성·경기도 평택·화성·안성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전국이 조류인플루엔자로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3월 16일 기준으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439농가 1,091만 2,000마리로 집계됐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03. 17).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은 2003년 12월이다. 이후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2008년, 2010년에서 2011년 사이까지, 2년 주기로 네 차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총 2,500여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었고 농가 보상액은 6,000억 원에 가깝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구분	2003~2004년	2006~2007년	2008년	2010~2011년
발생시기	겨울철(102일간) 03.12.10~04.03.20	겨울철(104일간) 06.11.22~07.03.06	봄철(42일간) 08.04.01~08.05.12	겨울철(139일간) 10.12.29~11.05.16
발생지역	10개 시·군 19건 〔닭10, 오리9〕	5개 시·군 7건 〔닭4, 오리2, 메추리1〕	19개 시·군·구 33건 〔닭25, 오리7, 기타1〕	25개 시·군·구 53건 〔닭18, 오리33, 메추리1, 꿩1〕
혈청형	H5N1 (유전형 2.5)	H5N1 (유전형 2.2)	H5N1 (유전형 2.3.2)	H5N1 (유전형 2.3.2)
유입추정	야생조류	야생조류	야생조류	야생조류
방역조치 (살처분)	392농가 5,285천 수	460농가 2,800천 수	1,500농가 10,204천 수	286농가 6,473천 수
피해액 (살처분 보상금)	1,531억 원	582억 원	3,070억 원	804억 원(추정)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8년 봄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총 19개 지역에서 33건이 발생했는데, 살처분 대상은 1,500농가의 10,204,000마리였다. 이는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부의 예방적 조치에 따라 '반경 3km 이내에 있는 가금류 농장의 닭과 오리 등을 모두 살처분'한 결과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구제역 등의 동물 전염병이 발생하면 발생 지점에서 반경 500m 안에 있는 감수성이 높은 돼지, 닭, 오리 등을 전염병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예방적 살처분하며,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경 3km 이내로 확대하고, 더 확대할 경우 반경 10km까지 확대해 동물들을 살처분한다."

저병원성은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지만 고병원성은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시엔 보다 공격적인 대응을 하게 되어 수많은 가금류들을 발병과 관계없이 살처분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고, 특히 동물을 생매장하는 등 비인도적인 살처분 방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인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원인을 철새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의 사례로 볼 때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확산 원인을 계속 철새에 두어, 보다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처에 소홀하게 되면, 우리는 격년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병과 살처분 사태를 반복하며 국고를 낭비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포함해 모든 생물체는 늘 병원체에 대처하며 살아간다. 그 결과는 생체 면역력에 따라 달라진다. 면역력이 약한 생물체는 작은 병원체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고, 면역력이 강한 생물체는 자신이 어떤 병원체에 감염되었는지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 이렇듯 생물체들은 수많은 병원체에 대항하며 살게 되는데, 그 병원체 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자연 상태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철새에게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타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발병했다가 면역력에 의해 지나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밀집 사육하는 닭, 오리 등의 가금류에게 옮겨졌을 때 변이를 일으키며 고병원성으로 발전되는 경우다. 이러한 경로 때문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원인을 철새로 보기 쉬운데, 이는 매우 소극적인 인지 태도로 이러한 인식 때문에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2014년 1월, 올해 발생하기 시작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의 사체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인플루엔자 발생의 원인을 철새로 보는 것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역학적인 검증은 되지 않았다.


밀집 사육되는 닭들의 모습.

오히려 철새보호단체들은 철새가 사육 가금류로부터 고병원성에 감염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급기야 2014년 1월 24일에는 국제단체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 협력기구(EAAFP)'가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인 H5N8은 야생 조류에서는 발견된 바 없고 밀집 사육되는 가금류 농장에서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발표였다. 이 발표에는, 야생조류는 고병원성에 감염되면 빠르게 죽기 때문에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없고, 가금류와 그에 관계된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이 전염병 확산을 촉진시킨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 정부에 철새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축산에 관계된 사람과 차량, 물류 이동을 통해 확산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국제적으로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은 철새의 계절적 이동 경로보다 인간이 사용하는 주요 도로와 철도를 따라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으며(The Lancet Infectious Disease, 2006), 이는 교역과 무역 등을 통해 집약식 농장을 오가는 동물, 축산물, 분변에 오염된 물체들이 운반되면서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것을 의미한다(Feare, 2007).

홍콩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야생 철새에게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야생조류가 이미 감염된 가금류가 사는 축사에 근접했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질적으로 많은 수의 야생조류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피해자라는 연구결과를 냈다(Chen, 2006).

예방적 살처분 반경을 발병지 3km 이내 농장에서 10km 이내의 농장으로 확대한 음성군의 경우를 보면, 정부는 음성군의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 지역(3km 이내) 중 약 80%의 오리농장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하였다(2014년 1월 25일). 정부는 다수의 농장 감염 경로가 수평적 전파(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해 전파)인 것으로 보고, 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살처분 반경을 10km 이내의 농가로 확대했다. 그동안 정부는 감염 확대를 우려해 전파 경로를 차단하고자 살아 있는 건강한 동물들마저 살처분하는 것으로 일관했건만, 음성군의 사례처럼 인플루엔자 감염이 넓은 분포로 전파된 것을 보면, 살처분 방식의 방역이 적절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평적 전파에 대한 조치 역시 동물들을 살처분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원인 인식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책임지는 이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정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저병원성을 고병원성으로 변이, 확산시키는가?

공장식 축산을 위해 밀집 사육되는 닭, 오리 등의 가금류는 저병원성이 고병원성으로 변이되기 쉬운 구조에 노출되어 있다. 알을 낳는 닭(산란계)은 가로, 세로 면적이 각 25cm 정도 되는 철망 케이지에 2마리가 평생 동안 갇혀 알 낳는 일만 하며 살게 된다. A4 용지 한 장 정도의 공간에 2마리가 사육되는 셈이다. 이는 닭 한 마리가 살기에도 어려운 공간이다. 닭들은 날개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닭 고유의 습성인 쪼기와 모래 목욕도 못한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며 면역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빼곡한 밀집 사육으로 이루어진 축산 군락은 수많은 개체에게 급속하게 전염병을 확산시키고 바이러스 변이도 촉진시킨다. 이러한 공장식 농장에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발전한 경우는 이탈리아(1999), 칠레(2002), 네덜란드(2003), 캐나다(2004) 등 세계 각국에서 발견되었다(CIWF, 2007).

우리나라 산란계 산업의 경우, 이미 공장식 축산업화가 이뤄진 뒤인 1989년 이후로도 꾸준히 집약화, 대형화가 진행돼 왔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989년에는 3,411 농가에서 38,301,772마리의 닭을 사육했지만, 2013년에는 1,221농가에서 64,824,106마리의 닭을 사육했다. 이를 평균으로 나눠보면 한 농가당 1989년에는 11,228마리의 닭을 사육했고 2013년에는 53,090마리의 닭을 사육했다. 14년을 지나오면서 농가당 사업 규모가 4.7배로 성장한 것이며 전통적인 농가의 개념을 넘어 산업체로 성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집약화한 공장식 축산업이 더 가속화된 것이며, 이러한 사육환경이 닭의 질병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가늠할 수 있다.

산란계 농가 수와 사육 마릿수

전국 산란계 농가 수와 총 사육 마릿수의 증감 추세

	산란계 농가 전체 농가수	사육 마릿수 전체 사육 마릿수
1989년	3,411	38,301,772
1992년	3,711	44,032,696
1995년	2,859	46,334,112
1998년	2,685	45,923,438
2001년	2,394	49,799,834
2004년	2,043	51,418,574
2007년	1,831	56,093,408
2010년	1,535	61,691,192
2013년	1,221	64,824,106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4월 영국 노포크에 있는 3개의 축사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했는데, 처음 감염된 가금류 축사와 세 번째 감염된 축사를 비교해보니 독성의 증가율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치사율에 근거를 두고 독성의 증가를 가늠하였는데, 첫 번째 축사는 2배였고, 두 번째 축사에서는 3배, 세 번째 축사에서는 4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혈액 검사 결과 양성이 나타난 개체들의 발생률을 보았을 때, 두 번째 축사에서는 28일 동안 45%였던 것에 비해 세 번째 축사에서는 12일 동안 100%의 발생률을 보인 것으로 비교되었다(CIWF, 2007; DEFRA,2006). 이는 동물의 사육 환경과 공장식 사육이 동물의 질병저항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동물의 질병 감염과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육환경뿐만이 아니다. 태어난 지 35일 정도가 되었을 때 도축되는 육계는 빠른 성장률과 더 많은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품종 개량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품종 개량은 유전자를 단일화해 개체 간의 질병 전파를 더욱 급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CIWF,2007; Rauw ea al., 1998).

육류용 닭들은 가슴살을 더 크게 키워내고, 산란용 닭들은 달걀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품종 개량되어 왔다. 생산성을 높이는 유전적 형질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오늘날 가금류들의 면역능력은 감소되었다. 생산성을 위한 유전적 선별과정이 면역기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현 공장식 축산을 위해 사육되는 가금류들이 자연에서 생기는 야생조류의 바이러스에 의해 위태로워지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HSI,2008).

동물복지 축산으로 나아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생산성만을 추구해온 산업 내에서 동물 고유의 생태를 심각하게 침해한 결과다. 과도한 육식 소비를 부추기는 것도 동물 전염병 발생의 배경이 된다. 그런 음식을 먹는 인간에게도 피해가 돌아온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것, 과도한 살처분 매장으로 인해 환경 피해를 입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피해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인 OIE가 2003년부터 2014년 1월 13일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현황을 발표한 것을 보면,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이 베트남이고 태국, 방글라데시,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네팔, 터키 등이 뒤를 잇는다. 한국은 11번째다. 후진국형 현상이다. 한국의 경제와 문화적 상황에 비해 축산 정책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동물복지에 초점을 둔 선진화된 축산 정책에 사회와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해야 한다.

최소한 산 채로 묻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 큰 바람일까요?

글 **한송아** 활동가

두 달이 넘도록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멈추지 않고 있다. 살처분을 최선으로 삼는 정부의 방역대책 때문에 2014년 3월 16일 기준, 가금류 1,087만 마리 이상이 몰살됐다. 여기에는 병에 걸리지 않은 멀쩡한 닭과 오리도 포함된다. '정말 저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걸까' 가슴이 먹먹해지다가도 '고기를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강하게 반대할 명분이 있을까' 싶은 것이 이번 AI 사태를 바라보는 대부분 사람들의 심정일지 모른다.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인간에 의해 동물이 죽는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과정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부족함에 따른 결과는 우리 사회에 수많은 피해와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다.

살처분에 적용할 동물복지 기준을 빨리 마련해야

살처분이란 동물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예방법의 일종으로 감염 동물 및 접촉 동물, 동일 축사의 동물 등을 죽여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질병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살처분은 단 시간 내에 수천, 수만 마리 동물을 죽여야 하는 만큼, 국제 사회는 살처분 전 과정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하도록 매우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다. 한국 및 세계 178개국이 가입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약에 따르면, 살처분에 사용되는 장비 및 기구는 고통과 상해를 피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하고, 가스를 이용한 안락사를 행할 때도 동물이 확실히 죽음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가스 농도 및 노출 시간에 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상자나 챔버에 동물을 넣어 가스를 주입할 경우에도 모든 동물이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동물을 수용해 과도한 밀도에 의한 질식사 위험을 방지하도록 규정해 살처분 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전문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은 물론이고,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이 동물복지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한 후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지침에는 살처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동물복지 저해요인에 대한 고려가 없다. 최소한 죽음을 확인한 후 사체를 포대 자루에 넣거나 매몰하는, 그나마 긴급 행동지침으로 마련된 기본적인 기준조차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다. 살처분 지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공무원들이 살처분을 진행하는 모습을 담은 인터뷰가 방영되고 있고, 작업을 빨리 진행하려면 생매장은 어쩔 수 없단 의견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경제 논리는 살처분 작업에도 반영되어 동물의 고통은 중요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영문도 모른 채 뒤뚱거리며 구덩이를 향해 걷는 오리들의 모습을 보는 이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과 자책만 더해간다.



영국 가스 도살 장비(출처:OIE)

긴급 상황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방만하게 여기기에는, 이러한 기준 없는 살처분이 동물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야기하는 문제가 많다. 수백만 마리 생명이 고통 끝에 산 채로 땅에 묻히고, 살처분 농가에 수천억 원의 보상비가 소요되고 있다. 땅에 묻힌 사체들은 침출수 문제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매몰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한다. 과도한 살처분 작업으로 살처분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발생하고 있으며, 살아 있는 동물이 처참히 죽어가는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동물복지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동물의 고통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살처분 과정에 투입되는 인력의 스트레스를 낮춘다. 해외에서는 마구잡이식 살처분보다 인간에게 더 안전하며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관련 장비와 시설을 도입하고,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것이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죽이기보다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단지 예방을 이유로 무조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반경 3km 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한다는 기준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월 12일 질병저항력 강한 축산업을 육성한다며 인증했던 동물복지인증농장의 닭들도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있다는 죄로 모두 살처분했다. 해당 농장주와 동물자유연대, 지자체와 공무원 노조까지 나서 동물복지인증농장의 살처분 철회를 요청했다. 특히 해당 동물복지인증농장 주변 3km 내에는 다른 가금류 농장이 없었고 지리적으로 방역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에, 인도적으로 키운 농장의 건강한 닭들의 AI 감염 여부, 지리적 요건에 따른 방역 효과 등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살처분 농가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해당 동물복지인증농장은 방목 사육(케이지에 사육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유롭게 야외를 드나들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아닌 평사 사육(케이지에 사육하지 않으면서 농장 내에서 풀어 키우는 것) 농장이었음에도 동물복지 농장은 닭을 풀어 키우니 더 위험하다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이유로 책임을 미뤘다. 이는 결국 정부가 위험지역이라고 설정한 방역대 안에 있는 동물복지인증농장의 닭들이 감염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이것이 'AI의 원인은 공장식 축산'임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가 될까 두려워한 것이다. 이 사례는 '획일적 살처분이 방역효과가 있다'는 정당성을 얻으려는 전형적 행정편의주의를 보여준, 길이길이 비판 받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AI로 인한 동물복지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8.7%였다. 효과가 불확실한 살생을 확대하기보다 우리 사회가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의 과반수가 바라고 있음을 의미한다. 홍콩, 이탈리아, 미국 유타 주에서 백신을 함께 사용해 AI를 통제한 사례처럼, 무조건 살처분이 아닌, 질병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다른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모든 생명은 결국 죽지만 세상 어떤 생명도 고통스러운 삶과 죽음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 이 땅에 인구수보다도 더 많은 동물들을 태어나게 했다면, 그 삶과 죽음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동물을 이용하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 아닐까.





AI 사태에 대한 동물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어렵게 인증해 놓고, 이제 와 다 죽이라니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농민은 어쩌하란 말입니까?”

인터뷰 · 정리 **임수빈 · 한송아 활동가**

지난 2월 12일, 예방이란 이유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동일농장’의 멀쩡한 닭들이 살처분되었다. 이에 동일농장 홍기훈 대표는 억울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사람들을 향해, 정부를 향해 호소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어렵게 마련한 자리를 통해 그를 만났다. 홍 대표를 통해, 이번 AI 발생으로 겪은 국가방역 대책의 허와 실에 대해, 또 농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활성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들었다.



살처분 직전 동일농장 닭들의 건강한 모습

달걀은 밀가루, 설탕과 함께 과자를 만드는 3대 원료 중 하나다. 제과회사에 다녔던 홍기훈 대표는 차별화된 과자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던 중 유럽에서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을 금지한다는 발표를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그는 달걀이라고 다 똑같은 달걀이 아니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다.

“닭이 가진 본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앞으로 우리가 달걀을 생산하는 방법으로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를 고려한 산란계 농장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농장을 시작했을 때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없었을 때라 생산한 달걀을 ‘유정란’의 한 종류로 판매했다. 그 와중에 유정란으로 판매되는 다른 제품들을 살펴봤더니 닭을 케이지에 키우면서 인공수정을 하거나 사육환경이 열악한 농장에서 나온 달걀도 같은 ‘유정란’으로 팔리고 있어서 제품을 차별화하기 어려웠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도입되자 홍 대표는 자신이 생산한 달걀이 보통의 유정란이 아닌 동물복지를 존중해 생산한 달걀임을 알리기 위해 앞장서서 인증을 받았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국가에서 정한 높은 사육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산란계 농장에서부터 시작됐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물복지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당시 홍 대표는 이미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에 인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추측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당시 그의 농장은 동물이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기는 했지만, 국가가 정한 까다로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시설 보완에 상당한 노력과 투자비용을 들여야 했다.

“특히 횃대의 경우, 농장 안 모든 닭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만한 분량, 또한 정부가 제시한 규격에 맞춰 새로운 횃대를 제작해야 했습니다. 계분에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야 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했죠. 그 밖에 급수라인과 아픈 동물을 따로 보호하기 위한 격리 시설을 설치하고, 바닥 관리 수준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만들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동물복지인증농장을 꾸리고 유지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까지 온 것이죠.”

어렵게 인증을 받은 보람은 있었다. 인증을 받기 전에는 판매처 찾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었으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고서는 모 달걀 유통회사와 전량 납품 계약을 맺게 됐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동물복지 달걀과 다른 달걀 사이의 차이점을 모르다 보니, 판매처에서 동물복지 달걀을 일반 달걀로 소개하며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었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생산한 달걀이 제값을 못 받은 것이다.



01



02

01 동일농장 홍기훈 대표
02 동물복지 축산농장 살처분을 규탄하는 동물자유연대 피켓 시위

“일반 달걀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려면 ‘공장식 사육 방식으로 생산하지 않는다’란 점을 부각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생산되는 달걀이 더 많다 보니, 적극적인 홍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농가들 눈치를 보는 것이죠.”

어렵게 인증을 받았지만 동물복지 달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판매도 순탄치 않던 중, 올해 1월 AI가 발생했다. 평소 닭들이 별다른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냈기에 철저히 소독하고 관리하면 아무 일 없이 이 시기를 지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도 잠시, 발병 농가 반경 3km 내 농가는 모두 살처분하겠다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의해 동일농장도 예



예방을 이유로 폐기된 동일농장의 달걀



살아 있는 닭들을 부대에 담는 살처분 작업 모습

방적 살처분 농가에 포함됐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근본적으로 질병에 강한 축산업을 육성한다며, 한국 축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지표로 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AI 발생 직후 정부는 오히려 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농가를 보호하고, AI 감염이 되지 않는 농가로 만들어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했다. 홍 대표는 살처분 순서라도 뒤쪽에 있어 동일농장의 한 계사에 있던 100일 된 병아리들만이라도 구제 받길 원했지만, 오히려 오염 농가와 더 가까이 있는 다른 농가들보다도 먼저 살처분을 치렀다.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살처분을 하는 거라면, 살릴 수 있는 동물은 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지 않나요?"

일부 정당까지 나서 동물복지인증농장에 똑같은 살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오히려 대한양계협회가 동물복지인증농장도 예외 없이 살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현재 동물복지인증농가가 전체 농가의 1%이다 보니 관행 사육 방식, 즉 공장식 축산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동물복지가 정착되려면, 동물복지에 진정성을 품은 사람들의 모임이 협회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처분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서 현재 시중의 닭, 오리 값과 달걀 값을 올리겠다는 것이 그들의 기본 마인드라고 봅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활성화시키면 생산성을 높이도록 발전된 축산 시스템이 무너지고 결국 달걀 값이 비싸져 물가 안정이 안 된다는 논리를 드는데, 동물복지인증농장이 많아지면 달걀 값은 자연히 내려가고 소비자들은 더 좋은 축산물을 먹을 기회가 많아지게 될 겁니다."

협회가 동물복지인증농장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면 차라리 '대한양계협회'가 아닌 '공장식양계협회'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다. 농림부에서 살처분 보상금 책정 시 대한양계협회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협회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할 동물복지 달걀의 가격조차 얼마인지 몰라 이곳저곳에 문의한 뒤 정부에 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홍 대표는 더욱 실망했다.

그렇다면 보상 부분은 어떨까. 닭이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떨어트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케이지 사육 농가에서는 달걀을 기계식으로 수확한다. 동물복지인증농장에서는 닭이 어두운 곳에 알을 낳는 습성을 고려해 설치한 산란상자에서 일일이 손으로 달걀을 거두는 노력부터 시작해,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또 농장 부지, 생산비 등이 두 배 이상 필요하다. 따라서 살처분 보상도 시세에 맞게 해야 할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행법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살처분 보상비에 대한 항목이 따로 없어 일반 농가와 차이를 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에 동물복지 달걀에 대한 시세 가격을 인정해줄 것, 그리고 살처분된 닭에 대한 보상을 유기축산 이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만약 보상마저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동물복지인증농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병에 걸리지도 않은 닭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살처분한 뒤, 다시 닭을 들여와 농장을 정상화하려면 1년 6개월 이상 걸리기에 보상 문제는 축산 농민에게 중요한 부분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축산물의 생산 방식과 동물복지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무엇보다 소비자 인식을 우선 변화시켜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여기엔 정부의 몫이 크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오히려 최근 '동물복지인증농장 살처분'이라는 이슈로 동물복지인증농장을 알리는 꼴이 됐다.

동물복지인증농장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홍 대표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복지 달걀과 공장식 사육 방식으로 생산된 달걀의 영양가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영양학적 측면을 따지고 보면 냉동 분말 달걀과 그냥 달걀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닭이 건강한 달걀을 생산하고, 이를 섭취하는 사람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육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국가가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현재 동물복지 달걀 가격은 다른 브랜드 달걀과 크게 차이도 나지 않는다. 내가 먹는 축산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관심을 갖는 행동은 동물이 받는 고통을 줄일 뿐 아니라, 소비자로서 더 좋은 품질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복지인증농장의 닭들이 살처분된 2월 12일을 '한국 축산 미래 살처분한 날'이라 평했다. 동일농장 살처분은 직접적으로는 정부의 명령으로 진행됐지만, 결국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 사회가 벌인 일이며 막지 못한 일이다. 우리 모두에게 멀쩡한 닭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 1,221개 산란계 농가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은 단 46곳. 우리 사회 동물복지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축산농민,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 포 애니멀스(Asia For Animals)’ 2014년 컨퍼런스에 다녀오다

글 **이형주** 팀장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시아 지역 동물들의 복지는 아직도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에는 아직 동물보호법이 없다. 아시아 일부 국가에는 개, 고양이를 먹는 관습이 있어서, 길에서 사는 동물들의 학대가 비일비재하고, 수만 마리의 개들이 베트남, 필리핀, 중국 국경을 넘어 식용으로 거래되는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다. 필리핀처럼 태풍과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많은 동물들이 목숨을 잃는다. 불법 밀렵과 거래, 서식지 파괴로 야생동물들은 그 수가 점점 줄고 있으며, 이미 서양에서는 시장을 잃은 고래 포획 업자들이 중국, 한국, 베트남에 새로 문 여는 수족관들을 상대로 야생에서 잡은 돌고래, 범고래를 팔아넘기며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위험에 처했거나 고통 받는 아시아 지역 동물들의 복지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아시아 포 애니멀스(Asia For Animals)’ 국제 컨퍼런스가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월 13일부터 5일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2014년 ‘아시아 포 애니멀스’에 참가했다.



‘잔인함과 맞서다(Confronting Cruelty)’

‘잔인함과 맞서다(Confronting Cruelty)’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30개국에서 170개의 단체를 대표하는 동물보호 활동가 총 310명이 참가했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학계 · 정부기관 관계자, 시민 등 동물복지에 관심 가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중 ‘변화를 위한 캠페인(Campaigning for Change)’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미리 선정된 12명의 발표자가 각각 교육, 동물 입양, 서식지 보존, 동물원 동물 복지 등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회의에서 동물자유연대는 ‘고래류 전시를 반대하기 위한 캠페인 전략(Campaign Strategies to Protest the Captivity of Cetacean)’을 주제 삼아 2013년 돌고래 방류 캠페인에서 사용한 전략과 그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공유했다. 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덩치가 커져만 가는 고래류 전시 사업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미 외신보도를 통해 많은 참석자들이 한국의 돌고래 방류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그런 만큼 동물자유연대의 발표는 큰 관심을 모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동물 학대와 고통, 잔인함에 익숙해진 활동가들의 얼굴이, 발표 자료화면 속에 찍힌, 바다로 돌아가 힘



컨퍼런스에 참가해 발표 중인 동물자유연대

차게 헤엄치는 돌고래들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과 용기의 미소로 물드는 장면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기도 했다.

전체 회의 일정 후에는 오락에 사용되는 동물, 야생동물 거래, 개 고양이의 식용 문제, 고래류의 전시 등 여러 주제에 따라 활동 분야가 같은 단체들끼리 모여 각자의 활동에 대해 발표하고, 함께 해결법을 모색하는 회의가 주를 이루었다. 동물자유연대는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대한 세계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고래류 전시를 반대하는 단체들과 연대를 이루어 한국의 ‘동부산 아쿠아리움’ 건설을 저지할 운동을 계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또 보호소 동물의 수의학적 관리, 농장동물 복지에 관한 워크숍에도 참가해 토론했다.

‘동물 복지’는 인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총 5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여러 발표와 워크숍을 통해 아시아 각지에서 갖가지 이유, 형태로 고통 받고 있는 동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를 벌일 수 있었다. 각 나라마다 사회적 구조와 동물복지 수준, 지역 특성이 다르기에,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모든 방안이 우리 현실에 맞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참가자들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모색하다 보니, 모든 지역과 이슈에 적용할 만한 공통적인 견해를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동물도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며, 동물복지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 문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기동물 수의 증가나 식용을 위한 개의 불법적인 거래는 동물 학대뿐 아니라 공중보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로 모아진 견해는, 결국 이제 동물보호단체는 단지 ‘동물에게 좋은 일’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 학대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없고, 동물 학대를 줄이려면 근본적인 ‘사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뿐 아니라 산업계,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또 미디어의 발달, 소셜 네트워크의 급부상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과학적 조사나 광고 · 영상물 제작 등의 부문에서 전문가들과 연계해 보다 전문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구 생태계와 모든 생명의 고통에 공감하자

흔히 우리가 ‘시골’이라고 부르는 외곽 지역을 여행할 때, 마당 한편 뜬장에서 땡볕 아래 물도 없이 방치된 개들을 보고 눈을 질끈 감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가 다르니까’, ‘지역적 특성이니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동물들이나 도시의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행복의 조건’은 그리 다르지 않다.

아시아 지역 동물 복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미 19세기에 동물 복지를 위한 법안이 소개되었던 유럽에 비해 아직 아시아에 동물 복지 개념이 자리 잡지 않았다고 해서, 아시아 동물들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지구촌 시대’는 광속으로 대륙 간을 여행하고 구글에 접속해 세계 구석구석을 실시간 이미지로 볼 수 있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결국은 하나의 ‘생태계’임을 인지하고, 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협력하고 노력하는 사회여야 할 것이다.

제돌이 방류의 의의

글 **장이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사진 **장수진** 연구원 이화여대 대학원 에코과학부





01 2013년 8월 27일, 야생 방류된 춘삼이가 다른 남방큰돌고래와 차귀도 앞바다를 유영하고 있다.
02 바다로 나간 제돌이와 춘삼이가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합류해 무리사냥을 하고 있다.

2012년 3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 쇼를 공연하던 제돌이를 제주도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나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 취지엔 동감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었다. 제돌이 방류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지만 예산집행의 지연, 대법원 판결까지 이르는 사법처리 과정의 지난함, 제돌이와 같은 처지로 퍼시픽랜드에 묶여 있던 남방큰돌고래 춘삼이와 삼팔이의 처리 등, 여러 현실적 문제점이 잇따랐다. 재활훈련 과정에서도 연구진 간의 불협화음, 삼팔이의 이탈, 등지느러미에 새긴 동결표식 논란 등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다행히도 남방큰돌고래는 2013년 7월 제주도 앞바다에 방류되었고, 이들 세 마리는 무리와 합류하여 제주도 해역에서 잘 살고 있다. 대성공이다.

단순히 보면 쇼 돌고래 3마리가 야생으로 돌아간 것이지만, 이 방류는 우리 사회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첫 번째로 남방큰돌고래의 불법포획과 거래가 거의 사라졌다. 해양경찰은 남방큰돌고래의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고, 법원은 불법 거래된 남방큰돌고래 몰수와 함께 관련자 처벌 판결을 내렸다. 이제는 누구든 남방큰돌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매매하면 해양경찰의 조사와 법의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쇼 돌고래용으로 남방큰돌고래를 포획하려는 수요는 사라졌고, 그만큼 우리나라 해역은 해양포유류에게 안전해졌다.

두 번째 변화는 쇼 돌고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이다. 2012년 제돌이의 방류를 결정한 직후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돌고래 공연에 대한 국민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2013년 7월 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돌고래 공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월등히 앞섰다. 물론 돌고래 방류가 성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돌고래 방류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많은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 본래 서식환경과는 너무 다른 비좁은 수족관에서 잔인한 처우를 받던 쇼 돌고래의 처지가 알려지면서, 제돌이 야생방류의 정당성이 국민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했다.

세 번째 변화로는 남방큰돌고래 연구에 대한 기여를 들 수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최근에 큰돌고래와는 다른 종으로 분류되었다. 돌고래 방류 사업의 전 과정이 학계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경우는 이번 사례 한 번뿐이다. 특히 제돌이의 경우 행동생태 자료를 수족관과 가두리에서 정밀하게 측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료는 돌고래 방류사업에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기초 행동 및 운동능력 자료 획득 외에도, 남방큰돌고래 방류 연구 중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방류 개체 세 마리의 성격과 운동능력이 서로 달랐다. 삼팔이는 무척 호기심이 많았고 늘 놀기를 좋아했다. 가두리 그물이 찢겨졌을 때 이 틈을 발견하고 이탈한 개체가 삼팔이인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한 달 늦게 서울대공원에서 가두리로 합류한 제돌이는 셋 중에서 운동능력이 가장 떨어졌다. 제돌이가 가두리로 이송되기 전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운동할 기회가 없었던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각 개체에 적합한 맞춤형 재활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남방큰돌고래의 성공적인 야생방류가 이 세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도 더 나아가고 흘러갈 수 있다.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동물권을 인정하는 법률의 정비, 동물의 복지에 입각한 정책 시행, 시민단체의 감시,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등이 필요하다. 또 남방큰돌고래의 야생방류가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 및 동물보호와 같은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점은 돌고래 공연 유지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혀왔다.

우리 현생인류는 지구의 생태계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진화해왔고, 그 생태계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생태계의 모든 과정은 개체의 작용을 통해서 이뤄지고, 개체의 구성은 생태계 유지의 주춧돌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방큰돌고래의 야생방류는 단지 돌고래 몇 마리에 얽힌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설정하는 시도였다.

장이권 교수는 동물의 의사소통을 연구하고 있다. '제돌이 방류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제돌이 방류사업의 행동연구를 수행했다.

‘진짜 한 식구’가 된 네뜨와 사랑이

글 **심인섭** 팀장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에서 서로를 만나 좋은 친구가 된 고양이 네뜨와 사랑이가, 좋은 입양자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처를 치유하고 포근한 가족을 이룬 네뜨 이야기를 ‘가상 일기’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네뜨라고 해요. 전 이제 엄마 얼굴도 가물가물해요. 가끔씩 엄마랑 언니들이 보고 싶지만, 전 지금이 좋아요. 지금 제 곁에는 다리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언제나 늠름한 사랑이 오빠도 있고, 무엇보다 늘 그리워하던 아빠가 생겼으니까요. 창 너머로 광안리 바다와 백사장이 보이는 집도 있고, 가끔씩 고모들이 찾아와 맛난 간식도 주고 놀아주기도 해요. 전 그런 고모들이 솔직히 귀찮긴 해요. 그래도 그건 제 성격이 좀 까칠하고 도도해서 그런 거니까 고모들이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해요.

제 과거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전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추워서 따뜻한 열기에 이끌려 차 안으로 숨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굉음에 놀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낯선 아저씨들이 절 어딘가로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사랑이 오빠를 처음 만났어요. 사랑이 오빠는 처음엔 저에게 막 화도 내고 손톱으로 할퀴기기도 했어요. 전 자꾸 맞다 보니 화가 났죠.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로 보였나 봐요. 전 오빠의 꼬리를 힘껏 물었고, 오빠는 비명을 지르며 더 때렸어요. 그 사건 이후, 전 오빠 말을 잘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오빠랑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어요.

사랑이 오빠는 저보다 한 달 먼저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에 왔다고 했어요. 다리가 좀 불편한 오빠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진 않았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릴 때 학대를 당해 부러졌는데 부러진 채로 뼈가 굳어서 그런 거래요. 왜 사람들은 우리 같은 작고 힘없는 동물들을 학대하는 거죠? 고양이들은 ‘너보다 힘없고 약한 고양이를 보호하고 돌봐줘야 한다’라고 엄마에게 배우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배우나 봐요.

몸이 조금 불편하지만 사랑이 오빠는 제가 머리털 나고 지금껏 봐왔던 남자 고양이 중에 최고로 멋져요. 먹을 게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먹고 내 것까지 뺏어 먹고요, 덩치 크고 고약한 쿠쿠 아저씨랑도 맞짱 뜰 정도로 겁이 없어요. 그래서 쿠쿠 아저씨는 저한테는 못되게 굴면서 사랑이 오빠한테는 먹을 것도 양보하고 자기 안방도 내어주곤 해요. 겁 없는 사랑이 오빠랑 함께 지내면 듬직하기도 하고, 추운 날에는 같이 있으면 몸도 따뜻해서 좋답니다. 돼지 같은 오빠가 내 밥 뺏어 먹을 때만 빼면 그럭저럭 행복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춥고 어두워서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엄마나 아빠가 있었으면 내가 잠들기 전에 동화책도 읽어주고 옛날이야기도 해주고 자장가도 불러줬을 건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왔어요. 아니 아저씨래요. 머리카락을 아줌마처럼 파마해서 아줌마인 줄 알았지 뭐예요? 아저씨는 우리랑 놀아주기도 하고, 우리 사진도 허락 없이 막 찍어갔어요. 며칠 뒤 동물자유연대의 우리 집사 아저씨가 쿠쿠 아저씨한테 나지막한 목소리로 ‘사랑이도 네뜨도 이제 곧 간다. 함께 있는 동안 재미있게 놀아’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얘기를 사랑이 오빠한테 했더니 ‘묘생이란, 만남 뒤에 필연적으로 이별이 찾아오는 법이야’ 하며 쿨한 척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새벽, 목이 말라 물을 먹으러 캣 타워에서 나왔더니, 화장실 옆에서 사랑이 오빠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어요. 내가 엄마를 잃어버린 그날 울었던 것처럼요. 안 그런 척했지만 오빠도 집사 아저씨, 쿠쿠 아저씨랑 헤어지는 게 아쉬웠나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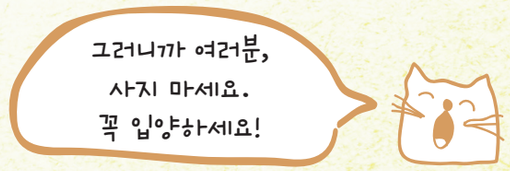
다음 날 아침, 사랑이 오빠와 저를 케이지 안에 밀어 넣는 집사 아저씨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더라고요. 눈병이 났나 봐요. 자주 좀 씻지.

그날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집엔 지난 번 사무실에서 봤던, 아줌마 같은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저씨는 ‘호호호’ 아줌마 웃음소리를 내며 우리를 반겨줬어요. 처음엔 전 낯선 환경이 불안하고 무서웠지만, 사랑이 오빠가 함께 있어서 안심이 됐어요. 오빠도 좀 떨고 있던데 추위 때문이라고 우기더군요. 옷은 자기 혼자 입고 있으면서 웬 추위 타령인지 모르겠어요.

집사 아저씨가 돌아간 뒤, 아줌마 같은 아저씨가 우리에게 ‘이제 아빠라고 불러라’ 말했어요. 난 내 친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새아빠가 생긴 건가요? 아빠는 우리들의 밥 양 맞추기부터 화장실 청소까지 모든 것이 집사 아저씨에 비해 아직 서툴러요. 그렇지만 우릴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절 만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요. 전 도도한 고양이라서 함부로 제 몸에 손대는 걸 허락하지 않거든요. 사랑이 오빠야 여기 온 다음 날부터 ‘벌러덩’이었지만요. 며칠 전에는 아빠가 우리한테 마사지를 해준다고 무슨 책을 사오더니 열심히 베고 누워 자기도 했어요. 책이 좀 더 두꺼웠으면 아빠한테 좋은 베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빠는 ‘우리 셋이 평생 행복하게 살자’는 말을 자주 해요. 전 행복하게 산다는 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지만, 이제 우리만 바라봐주는 아빠가 생겼다는 거, ‘우다다’ 하기에 숨이 찰 정도로 넓은 집이 생겼다는 거, 푹신한 침대에서 아빠랑 오빠랑 같이 누워 잘 수 있다는 것에 기분이 좋아지긴 해요. 아, 아빠가 그러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맛난 것도 많이 사줄 수 있대요. 그런데 맛난 거 말고 엄마나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오빠랑 저는 여기서 아빠 말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동물자유연대 사무실에 남아 있는 쿠쿠 아저씨랑 부일이 오빠도, 얼른 우리처럼 아빠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베트남 곰 농장, 왜 사라지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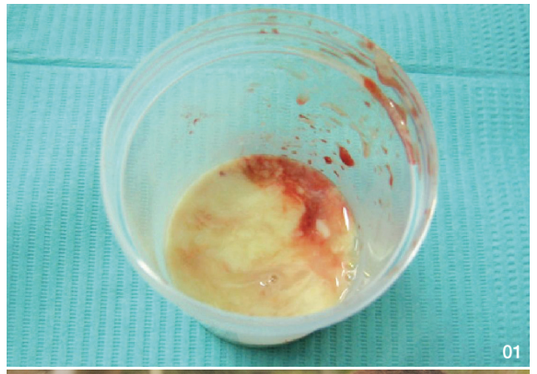
글 **김지영** 활동가
사진 **애니멀스 아시아 파운데이션 (Animals Asia Foundations)**

베트남 하롱베이 근방의 한 사무실, 판매자로 보이는 남자가 곰 쓸개즙의 효능에 대해 찬양을 쏟아낸다. 잠시 후, 마취상태의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들것에 실려 오고, 남자는 익숙하게 곰의 배에 난 구멍에 바늘을 꽂아 호스로 쓸개즙을 뽑아낸다. 숨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관광객들은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쓸개즙이 담긴 술잔을 받아 든다. 예상치 못한 잔인한 광경에 고개를 돌리거나 밖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몇몇은 지갑을 꺼낸다. 그 사이 곰은 다시 들것에 실려 비좁은 사육장으로 돌아간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베트남 곰 농장 실태와 대안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일부 국내 여행사들이 베트남 현지의 불법 곰 쓸개즙 채취 농장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베트남 하롱베이 지역 곰 농장 모습

2005년 베트남 정부는 살아 있는 곰의 쓸개즙을 채취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베트남 하롱베이 지역 곰 농장들은 막대한 수입을 올리며 운영 중입니다. 하루에도 10여 대의 관광버스들이 곰 농장 앞에 멈춰섭니다.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입니다. 주요 구매자뿐 아니라 베트남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곰 농장 운영자 역시 한국인입니다. 일부 국내 여행사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쓸개즙 채취를 위해 곰 농장을 운영하는 것과 곰 쓸개즙 가공품을 구입해 국내로 밀반입하는 것이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공연히 관광객들을 곰 농장으로 인솔해 구매를 부추깁니다. 베트남에서 곰 농장 산업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01 피, 고름이 섞여 있는 곰 쓸개즙
02 곰 농장에서 구조돼 AAF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육곰

피해는 고스란히 관광객들 몫입니다.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쓸개즙 속 우루소데옥시콜린(UDCA)은 합성이 가능한 성분입니다. 일반 약국에서도 해당 성분이 함유된 간 기능 개선제를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에 반해 사육곰으로부터 직접 추출한 쓸개즙은 염증, 암세포 등으로 오염돼 있어 섭취했을 경우 기생충이나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오염된 곰 쓸개즙은 우리 몸에서 간과 신장 기능 손상, 황달, 복막염 등을 유발시키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도 합니다. 그러나 곰 쓸개즙 판매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곰 쓸개즙에 마치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관광객들을 현혹합니다. 관광객들은 모처럼의 여행길에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도 모자라, 본의 아니게 범법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반달가슴곰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CITES)'의 부속서 1에 속하는 종으로 그 부산물인 곰 쓸개즙 밀반입은 관세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처벌도 무겁습니다. 불법 여부를 모르고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곰 쓸개즙을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같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여행사에 곰 농장 방문 여부를 꼭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하롱베이 지역 곰 농장에서는 아직도 수백 마리의 멸종위기 반달가슴곰들이 배에 고름이 가득 찬 상처를 안은 채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곰 쓸개즙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곰 농장을 방문하는 여행상품을 구매함으로써 곧 비인도적인 곰 농장 산업의 지속에 일조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나의 사소한 선택이 한 생명을 고통에서 구할 수도, 끝없는 고통에 빠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여행사에 곰 농장 방문 여부를 꼭 확인해주세요
패키지 상품을 통해 베트남, 중국 등지를 여행할 때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여행사에 연락해 곰 농장이나 곰 쓸개즙을 파는 약방이나 동장을 방문하는지 확인하고, 방문하지 않는 상품만 구매해주세요. 곰 농장 방문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더 빨리 곰 농장 산업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곰 쓸개즙 국내 반입이 불법임을 알려주세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곰 쓸개즙의 국내 반입이 관세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것, 또 여행 상품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곰 농장 방문이 포함된 여행 상품을 발견하면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해주세요
곰 농장을 방문하는 여행사를 발견하거나 여행 중 곰 농장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다면 동물자유연대에 바로 제보해주세요. 동물자유연대는 시민들의 제보를 근거로 해당 여행사에 곰 농장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수사기관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등 곰 농장 산업의 종식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토종기업의 뚝심과 저력을 보여 주는 대한사료주식회사

인터뷰 정리 **홍소영** 활동가

대한사료(주) DAEHAN FEED CO., LTD.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행복한 나눔'이란 기부 명으로 사료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 대한사료㈜의 이상민 대표이사를 만났다. 사내 부서 중 양견 파트의 명칭을 '컴패니언 애니멀(Companion Animal: 반려동물) 팀'이라고 바꿨을 정도로 반려동물 문화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대한사료㈜의 포부와 기부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한사료㈜의 성장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1947년 부산에서 법인을 설립해 기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계, 양돈, 축우 사료를 만들고 있고, 특수사료로는 양견, 양어 사료까지 생산합니다. 국내 사료회사 약 44개 가운데 시장점유율로 봤을 때 전체 사료 시장에서 6위 정도의 입지, 특수사료 파트인 양견 사료의 생산량과 시장점유율로는 업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견이라고 하면 큰 개를 포함한 것인데, 그중 'PET'이라고 분류하는 작은 개들이 먹는 '펫 전용' 사료 생산량은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20년 이상 양견 사료를 생산해왔고 국내 업체 최초로 해외 수출을 시작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1994년 대만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수출 중이며 홍콩, 태국 수출도 예정 중입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료에 생고기를 첨가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지난 1월 '행복한 나눔 시즌 2'를 진행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통 큰 기부를 실천하셨죠? 사료 나눔 기부를 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올해 70회기를 맞는 국내 대표 사료회사로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책임과 환원을 통해 사회와 동반성장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처음엔 개인적으로 유기견을 돌보는 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실 때마다 수동적으로 지원했었지만 일부 부작용이 있었고, 많은 보호소 가운데 본래 취지대로 정직하게 아이들을 돌보고 운영하는 곳들을 잘 선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으로 바른 기부를 대행할 검증된 단체를 찾기 위해 조사를 거쳤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경우 정부에서 사단법인으로 인가했고, 정식 등록된 기부단체이며 가장 체계화된 활동을 하고 있기에 작년 첫 번째 '행복한 나눔' 기부행사를 통해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활동은 대한사료(주)가 매년 6톤의 양견 사료를 기부하면, 동물자유연대가 사설 보호소를 선별해 사료를 배분하는 나눔 활동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사료 기부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70년 전통을 가진 국내 최초의 사료회사, 토종기업으로서 외국계 기업과 다르게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있나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는 이 시대에 동물사료업체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애견산업은 매년 10%씩 급신장 중입니다. 현재 국내 가구의 20%가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는데, 가구당 반려동물에게 소비하는 돈이 매월 65,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료시장의 70~80% 정도를 외국기업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료의 원료나 제조 기술 · 시설이 외국기업 수준에 못 미친다면 수입 사료에 의존해야겠지만, 현재 우리를 비롯한 국내 사료회사들의 수준은 해외로 수출할 정도로 상당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연간 1억불 이상의 사료가 수입되어야 하는지, 그 사료의 가격이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사료는 전부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제품력, 위생 등 모든 면에서 국제적인 수준이라고 인정받는 것들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국내에선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고, 이는 국내 펫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 모두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대한사료㈜는 국제적 수준의 원료배합 기술력과 위생적 시설, 유통단계별 정당한 코스트의 지불로 가족 같은 반려동물에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동물사료업계가 공동으로 사명감을 갖고 공정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면 펫 사료 문화도 균형 있고 올바른 단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입양해주세요

몬순이 자매의 애교 발랄 빛나는 존재감

글 **손혜은** 활동가 반려동물복지센터


하제


라온이

임신한 채 동네를 떠돌아다니던 어미 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미 개가 동네 청년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걸 보다 못한 한 분이 어미 개를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어미 개는 앙증맞은 새끼 여섯 마리를 낳았답니다. 그중 두 마리가 바로 라온이와 하제입니다. 라온이와 하제는 반려동물복지센터에 들어온 첫날부터 '격한' 환영인사를 하며 혼을 쏙 빼놓더니만, 독특한 외모 덕에 '몬순이 자매'라는 별명도 얻었답니다.

잠깐! 여기서 '몬순이'란 이름의 속뜻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못생기고 빈티나지만 순하고 사랑스러운 귀요미'라는 뜻이랍니다. ^^

독특한 외모에 '뚱꼬발랄'한 성격으로 모든 이의 혼을 쏙 빼놓는 것은 기본인 하제는, 사람을 보면 너무 좋아 꼬리를 흔들며 반기고,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댄스로 웃음을 선사해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라온이의 애교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겪어보지 않은 분은 모르실 겁니다.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두 자매지만 몸무게가 8~10kg 정도 나가는 중형견인데다 믹스견이다 보니 평생 가족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발랄한 성격인 하제와 라온이는 오늘도 댄스, 꼬리 흔들기, '발라당' 애교를 부리며 반려동물복지센터에서의 시간을 누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몬순이 자매', 하제와 라온이의 평생 가족이 되어주세요~!

동물에 대한 예의

한국은 동물들의 지옥이다. 전 세계에서 동물실험이 가장 자유로운 곳, 그리고 동물들에 대한 '살처분'이 가장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번 조류독감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초부터 3월 14일까지 살처분한 가금류는 1,085만 마리를 넘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한국에도 이젠 동물의 생명에 대해, '동물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동물보호운동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된 듯하다. 다행일까 불행일까?

그런데 동물보호에 대해 말하는 걸 보면, 가끔 부아가 치미는 경우가 있다. 그들이 보호하려는 동물이 개나 고양이 같은 이른바 '반려동물', 쉽게 말해 '인간 친구들' 주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볼 때 특히 그렇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발상이기 때문이다. 동물들에 대한 저 대대적인 학살이 바로 인간중심주의로 인한 것임을 안다면, 동물보호운동과 그 학살이 의외로 가까이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라운 게 아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그런 걸까? 아니면 너무도 인간중심적인 서구의 동물보호운동을 모델로 해서 그런 걸까?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고 아꼈으며, '정복하라, 네 맘대로 써라, 저 사과나무 하나만 빼고'라고 했다는 창세기의 신화 때문인지 몰라도 서구의 인간중심주의는 뿌리 깊고 광범하다. 가령 사자, 호랑이, 고양이를 하나로 묶어 '고양이과'라 명명하고, 늑대, 여리, 개 등을 묶어 '개과'라고 명명한 생물분류학은, 인간을 진화의 종점에 놓은 진화론만큼이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에 반감이 먼저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몇 년 전에 개고기 먹는 걸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들에게 화를 내며 항의한 적이 있다. 왜 소, 돼지, 닭은 먹어도 되고, 개는 먹으면 안 되느냐고. 인간의 친구라서 그렇단다. 그럼 어떤 놈은 인간의 친구로 태어나고, 어떤 놈은 인간의 먹이로 태어나는 건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에게 고기를 대주기 위해 갇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채 사료만 먹어대는 동물에 비하면, 개는 그나마 행복한 거 아닌가? 평생 인간의 친구로 사랑받고 살다가, 마지막에 잠시 배신의 고통을 겪을 뿐이니까. 게다가 이젠 방역을 위해 대대적인 학살을 당하는 게 사육동물들 아닌가!

그렇다고 고기를 먹지 말자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전에 데스카 오사무의 만화 〈밀림의 왕자 레오〉에서 동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걸 막으려고 사자인 레오가 "이제 모두 풀을 먹고 살자"고 하는 걸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사자가 풀을 먹고 살 순 없는 일일 게다. 생태계는 서로 기대어 사는 '공동체'를 사고단위로 하지만, 그 공동체는 '먹이사슬'이기도 하다. 서로 먹고 먹히는 방식으로 기대어 사는 공동체인 것이다. 어느 생물도 먹는 걸 피할 수 없듯이, 먹히는 운명 또한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냉정한 먹이사슬 안에는 주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 주인의 친구로 태어나는 것도, 불행하게 먹이로 태어나는 것도 없다.

동물들을 반려동물과 먹이동물로 나누곤, 자신이 나눈 그 범주에 따라 다른 태도를 할당하는 식의 사고방식이야말로 동물에 대해 제대로 사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버려야 할 가정이다. 반려동물에겐 돈 들여 화장까지 해주면서, 고기들은 내키는 대로 먹다가 배부르면 이빨 자국 남긴 채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일상의 모습이야말로 동물의 생명권이란 이름으로 가장 먼저 되짚어보아야 할 태도다.

북미인디언들은 동물들을 사냥하여 먹고 살지만, 동물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의 마음을 갖고 살았다. 사냥을 시작하며 하는 제의에서는 동물들에게 '다시 잡아먹게 되어 미안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고통으로 최소한으로만 잡을 것이고, 우리 또한 죽어서 너희가 먹는 풀의 거름이 되어주겠다'는 내용의 제문을 함께 외운다. 사냥할 때마다 스스로 다짐하고, 또한 사냥에 처음 참여한 신입자들을 가르치려 함일 게다. 잡은 동물은 고기에서 가죽까지 최대한 버리지 않고 '이용'하며, 뼈는 발라서 곱게 수장하거나 묻어준다. 그게 자신들에게 생명을 내준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자기들에게 계속 고기를 먹도록 해줄 거라고 믿는다. '친구'에 대한 요란한 애정표현보다는 자신의 '먹이'에 대한 이 과묵한 존중과 감사야말로 동물과의 관계를 생각하려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아닐까?

나는 애완견을 치장하고 좋은 거 먹이는 데는 온통 관심을 쏟지만, 대대적으로 죽어가는 사육동물들의 고통에 대해선 아무 관심도 없는 이들을 믿지 않는다. 반면 인디언처럼 자신이 먹기는 하지만, 그 먹는 동물에 대해 이처럼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려 하는 이들을 존경한다. 그런 이들이라면 먹이로 몸을 주는 동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자신들이 먹거나 돈 벌려고 키우는 거니까 병들면 쉽게 버리고 방역을 위해 대대적으로 쳐 죽이는 저런 학살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확산된다면, 공장처럼 고기들을 생산하는 것도, 사고 나면 경제적 계산만으로 저렇게 처참하게 동물들을 학살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테니까.

글 **이진경 (수유너머n 연구원, 서울과기대 교수)**
그림 최진영



활동소식 2013년 11월 ~ 2014년 3월



길고양이와 공존하기 위한 거리 캠페인 진행

2013년 11월 21일, 홍대에서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거리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고양이 사료를 후원해주신 (주)내추럴발란스코리아, 길고양이 일러스트를 재능 기부해주신 박정아 회원,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응원해주신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반려동물 생산 · 판매업 대응 활동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가 시행됐지만, 대부분의 번식장은 여전히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불법 운영 중인 번식장들이 법에 규정된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를 유도하고자 시민들로부터 번식장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 얼굴에 종양을 달고 산 길고양이 구조

얼굴 한쪽에 종양이 달린 길고양이를 구조했습니다. 거리 생활 탓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버틸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병원 치료를 잘 받고 제보자에게 입양됐습니다. 오랜 시간 힘들었을 길고양이가 건강을 되찾아 앞으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공사 중인 건물에 돌고래를 반입한 ㈜거제씨월드 고발

㈜거제씨월드는 사용 승인도 받지 않은 건물에 돌고래 4마리를 옮기고, 이후에도 흰고래 4마리를 추가 반입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거제씨월드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고래류 추가 반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베트남 곰 농장 방문 알선 여행사에 대한 수사 요청

동물자유연대는 베트남 곰 농장 방문을 알선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곰 농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관광객에게 쓸개즙 반입을 유도한 업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곰 쓸개즙 판매 행위를 한 인솔 · 판매자, 알선업체 모두 처벌 받도록 노력 중입니다.



동물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및 신계륜 위원장 면담

2014년 2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동물원법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더불어 동물원법 공청회 개최 요청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신계륜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88개 국제단체의 연대서한과 11,782명 시민이 동참한 동물원법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제17차 정기 총회

2월 15일, 대의원과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7차 동물자유연대 정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새로 단장한 동물자유연대 사무실에서 연 이번 총회는 2012년 재정보고 및 예산 승인, 개별 운동을 담당하는 활동가들이 준비한 2013년 활동상 · 2014년 활동 계획 발표로 꾸려졌습니다.



안성시 번식장에 방치된 개들 구조

버려진 번식장에서 아무 돌봄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던 개들을 구조했습니다. 현행법상 '방치'는 학대로 인한 격리 · 보호 조치 대상이 아니기에 견주의 소유권 포기 없이는 구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방치 또한 동물학대로 처벌받게 되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직하우스와 함께하는 퍼 프리(Fur Free) 캠페인

동물자유연대는 2013년 11월, 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모피 사용을 반대하는 '퍼 프리(Fur Free)' 캠페인을 위해 의류 브랜드 '베이직 하우스'와 공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지난겨울 모피로 사용될 뻔한 4만9천 마리의 생명을 살리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무차별 살처분 반대 활동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예방차원이라는 이유로 2014년 1~2월 동안 500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살처분을 규탄하고, 방역 체계의 전면 개정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 피케팅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13년 연례보고

동물자유연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에도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의 귀향, 동물복지센터 완공 등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동물자유연대가 펼친 활동들을 영역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2014년에도 지난해 못지않은 왕성한 활동과 결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반려동물

-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캠페인: 2013년 7월, 서울시 최초의 반려견 놀이터 개장(어린이 대공원)
- 길고양이 인식 개선 및 TNR 정책 홍보
-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 위탁 및 길고양이 사업 비리 대응
- 동물 학대 예방 및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캠페인
  - SBS <TV 동물농장>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 및 CJ E&M 유기동물 예방 캠페인 제작 협력
-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업 대응
  - 미신고 종견장 적발: 신고 유도 및 고발 조치
  - 미등록 동물 판매업소 적발: 등록 유도 및 고발 조치
- 개식용 반대 캠페인
- 입양동물의 날 행사
- 반려동물복지센터 설립
- 2013년 구조 및 보호, 입양 관리 동물: 2013년 말 현재 총 보호동물 수 155마리. 총 43마리 입양 연결(부산지부 : 총 8마리 구조. 보호동물 6마리, 입양 2마리)







2. 농장동물

- 동물복지인증 달걀 홍보 캠페인
- 산란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계산방식 및 돼지 이력제에 대한 개선점 제안
- 육계 동물복지인증 기준안 마련 대응
- 양돈 동물복지인증제 실시 대응
- 동물복지 운송 및 도축
  - 운송 · 도축 기준안 마련 대응
  - 도계 · 도축장 현장조사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개정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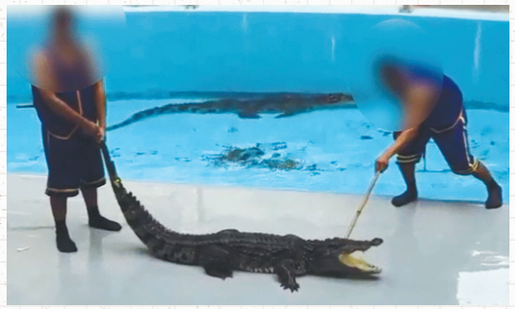
3. 실험동물

-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 캠페인
  -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화장품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글로벌 서명 운동 참여: 전 세계 100만, 한국에서 5만2천 서명 달성



4. 오락 · 전시 동물

- 동물원법 제정 운동
  - 동물원법 제정 촉구 서명 운동 전개
  - 동물원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전시동물의 실상을 다룬 영화 상영회 등 전시동물 복지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활동
- 동물원 실태 조사 및 개선 캠페인
  - 김해 부경 동물원, 쥬쥬 동물원 등 전국 공영 동물원에서 실시





5. 돌고래

-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 몰수 시민 운동: 춘삼 · 삼팔 야생적응 훈련 지원
- 돌고래 방류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 남방큰돌고래 춘삼 · 삼팔(퍼시픽랜드), 제돌(서울대공원) 방류 성공





6. 야생동물

- 해양생물 전시 중단 및 방류 노력
- 거제 씨월드 건립 반대: 공동 기자회견, 건축법 위반 고발
- 모피 반대 캠페인
- 모피 장식 반대 서명 운동 전개
- 모피 장식 반대 지하철 광고
- ㈜베이직하우스와 'Fur Free' 캠페인 협약
- 사육곰 폐지 운동
- 베트남과 중국 여행 중 곰 쓸개즙 판매 알선한 업체 조사 · 고발
- 관광객 상대 불매 운동 및 대중교육
-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거래 조사 · 고발





7. 교육 및 정책 참여 활동

- 서울시 '동물보호 · 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회 참여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참여
- 동물보호법 개정 견인
  - 동물학대의 정의 구체화, 동물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물을 인터넷 등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전시, 상영하는 행위 금지 등



8. 배분사업

- 사설동물보호소 지원: 안성 350마리 보호소 외 사설보호소 여러 곳에 13회에 걸쳐 사료 4,350kg과 간식 등 지원
- 다음 '희망해' 모금 심사 담당

* '희망해' 모금 총 50건 중
- 지급 35건(금액: 184,565,304원)
- 수혜기관: 동물사랑실천협회, 나주 천사들의 집, 300마리 강아지의 행복한 보금자리
- 모금진행 취소: 7건
- 2014년 이월: 8건



2013년 회계보고

동물자유연대는 믿을 수 있는 후원금 운영을 위해 동물단체 최초로 살림 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2013년 결산부터는 자발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계감사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공지할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어려운 와중에도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리적이면서도 알뜰한 지출을 위해,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며 살림을 꾸리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에 항상 신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회계사의 감수가 완료되지 않아 일부 금액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복지센터 건립비 사용내역(2013.12.31.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내용
센터 메인건물	부지매입	150,000,000	148-2번지 1필지
	설계비	18,040,000	
	건축공사비	779,120,000	
	건축감리비	6,144,600	
	계약 외 부대공사	126,510,212	지하수 개발, 칸막이 공사, 펜스 공사 등
	인 · 허가 및 공과금 등	81,049,740	
	합계	1,160,864,552	
센터 부속건물	부속동 1	189,915,730	건물매입 및 부대비용
	부속동 2	215,654,490	
	직원사택	216,927,503	
	합계	622,497,723	
총계		1,783,362,275	

사업지정 기탁금(다음 희망해를 통한 모금을 심의·배분한 내용입니다.)

구분	수입	지출	차액
다음 희망해 배분	182,514,546	184,565,304	2,050,758

2013년 당기 결산내역

계정과목	금액	
수입총액		1,588,164,686
Ⅰ. 수입액		1,551,897,218
1. 후원회비	1,311,905,788	
2. 후원금	200,552,060	
3. 보육원 건립 후원금	39,439,370	
Ⅱ. 기타수입		36,267,468
1. 이자수익	35,611,968	
2. 잡이익	655,500	
지출총액		2,564,299,548
Ⅲ. 활동 사업 지출액		992,247,040
1. 반려동물복지 프로그램	142,234,241	
2. 전시동물복지 프로그램	40,860,538	
3. 실험동물복지 프로그램	1,743,650	
4. 농장동물복지 프로그램	8,132,848	
5. 모금 · 홍보 프로그램	11,330,440	
6. 행사 및 캠페인	16,131,230	
7. 배분사업(치료비 지원)	10,214,563	
8. 급여	468,068,500	
9. 연구활동조사비	8,847,099	
10. 퇴직급여	30,232,040	
11. 복리후생비	36,324,355	
12. 여비교통비	2,221,575	
13. 통신비	14,564,960	
14. 수도광열비	9,902,250	
15. 세금과 공과	1,113,510	
16. 임차료	19,840,000	
17. 보험료	2,750,910	
18. 차량유지비	10,112,716	
19. 운반비	1,671,940	
20. 교육훈련비	2,592,000	
21. 도서인쇄비	14,326,000	
22. 소모품 & 비품비	23,275,192	
23. 지급수수료	70,955,456	
24. 잡비	25,570	
25. 대외협력비	9,529,920	
26. 4대 보험료	35,245,537	
Ⅳ. 보육원 건설비		1,405,432,235
Ⅴ. 자산지출		161,340,273
1. 사무국 증 · 개축	85,658,800	
2. 임차보증금	60,000,000	
3. 부산 지부 차량 구입	15,681,473	
Ⅵ. 기타지출		5,280,000
1. 잡손실	302,700	
2. 선납세금	4,977,300	
Ⅶ. 당기순이익		-976,134,862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글 **손혜은** 활동가 반려동물복지센터



남양주 반려동물복지센터에는 열 살이 넘은 노령견, 노령묘가 여러 마리 있답니다. 다들 상당한 동안이라 나이를 알고 나면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절대 동안'의 주인공들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표정과 털 빛깔은 모두 다르지만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각자의 매력이 느껴지시나요? 대체 이렇게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은 뭘까요? ^^





©최성규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동물자유연대는 인간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와 종을 줄여나감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윤리적 조화를 목표로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 구조 및 입양, 학대 현장 조사,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동물학대 예방 캠페인, 국제 동물복지 컨퍼런스 개최, 국제 연대, 동물복지 연구 조사 활동, 동물복지 정책 협력 및 자문(정부기관 및 다수의 언론기관) 등

반려동물 유기동물의 증가를 막기 위해 중성화 수술 캠페인과 재입양 캠페인을 진행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강화 운동과 올바른 양육 정보 제공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를 향상토록 합니다.

농장동물 공장식 축산업으로 인해 고통 받는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비인도적인 사육 방식을 금지하고 농장동물의 사육과 운송, 도축 과정에서 동물이 받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캠페인과 입법을 추진합니다.

실험동물 실험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촉구하고, 화장품을 비롯해 불필요한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이 없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락동물 동물이 유흥과 오락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을 모니터링하여 학대 요인을 방지하며,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를 위한 캠페인과 입법을 추진합니다.

동물자유연대와 함께하면!

동물자유연대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법인)에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후원으로 등록하시는 분들께는 매월 뉴스레터, 계절마다 동물보호 계간지를 보내드립니다.

후원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오락동물 등의 동물복지 캠페인 활동, 동물보육원 건립, 동물보호법 및 관련 제도의 강화 요구 등에 사용됩니다.

어떻게 후원할 수 있나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animals.or.kr로 접속해서 회원 가입하시면 매달 정기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으로 조성된 후원금은 동물자유연대의 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계좌 국민은행 806201-04-005468
농 협 015-17-002592
예 금 주 동물자유연대

문의 T. 02-2292-6337 F. 02-2292-6339
E-MAIL admin@animals.or.kr